

# 직장인 5명 중 3명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느껴”

직장인 5명 중 3명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조차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알바생과 취준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컸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과 알바생, 취준생 등 232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알바몬은 먼저 응답자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매우 불안정하다’ 26.6%, ‘불안정한 편이다’ 49.1% 등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75.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는 22.0%로 낮았으며 ‘매우 안정된 상태’라는 응답은 겨우 2.3%를 얻는 데 그쳤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에게서조차 62.7%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알바몬으로 수입을 거두는 알바생들도 70.1%로 높았으며, 마땅한 수입처가 없는 취준생들의 경우 87.6%로 크게 높았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응답군별로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은 ‘이전에 비해 월 소득이 줄어서’가 23.2%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월세, 대출이자, 관리비 등 고정지출이 큰 편이라(18.4%)’가, 3위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거나 기쁨이 없어서(15.8%)’가 차지했다.

반면 알바생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지

않고 월급이 줄어서(20.7%)’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구직에 실패해서(19.6%)’와 ‘이전에 비해 월 소득이 줄어서(18.0%)’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 상황’ 주제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안정감 불안정하다” 응답 75.7%로 높게 나타나

특히 취준생들은 ‘구직에 실패해서’가 63.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취업, 이직, 알바 등 구직에 성공해서(24.2%)’를 1위에 꼽았다.

2위는 ‘부모님, 배우자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을 곳이 있어서(19.6%)’가, 3위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에 변화가 없어서(14.0%)’가 각각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44.6%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압박감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늘었다’는 응답도 34.6%로 적지 않았다.

‘전과 다를 바 없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으며 ‘줄었다(2.1%)’ 및 ‘사라졌다(1.1%)’는 모두 합쳐 3%에 그쳤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 속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0%가 “나는 쟁거루족”이라 답해 눈길을 끌었다.

쟁거루족이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인지적, 경제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직장인의 35.7%, 알바생 47.3%가 스스로를 쟁거루족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취준생들의 경우 그 비중이 58.7%로 눈에 띄게 높았다.

특히 자신이 쟁거루족이라고 답한 응답자 3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쟁거루족이 됐다’고 답하기도 해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실감케 했다.

한편 직장인과 알바생, 취준생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이후 직장관에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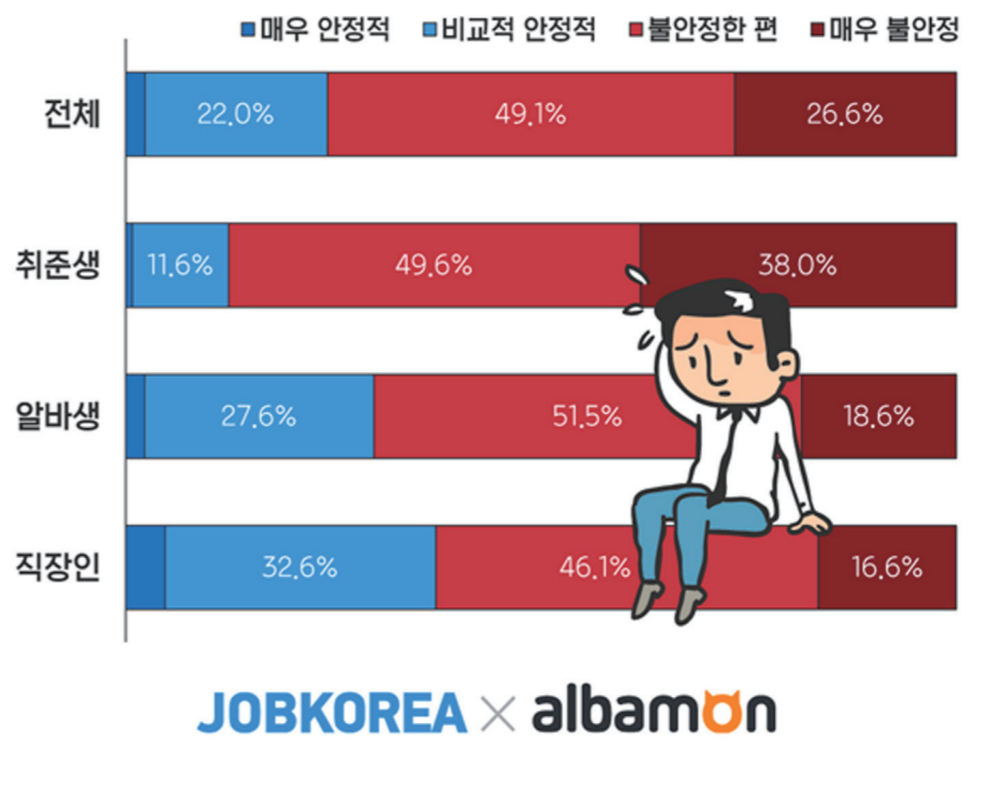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직장관의 변화(\*복수응답, 이하 응답률)로는 ‘안정적으로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일이 최고(55.2%)’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언제 일을 그만두더라도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준비돼 있어야 한다(37.5%)’, ‘불황에 그럭저럭 정도의 안정되고 탄탄한 기업이 최고(31.2%)’가 차지하는 등 고용불안과 맞닿은 응답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렇다 하게 알아주는 직장보다 당장

## 직장인 62.7%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직장인/알바생/취준생 2,327명 설문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X알바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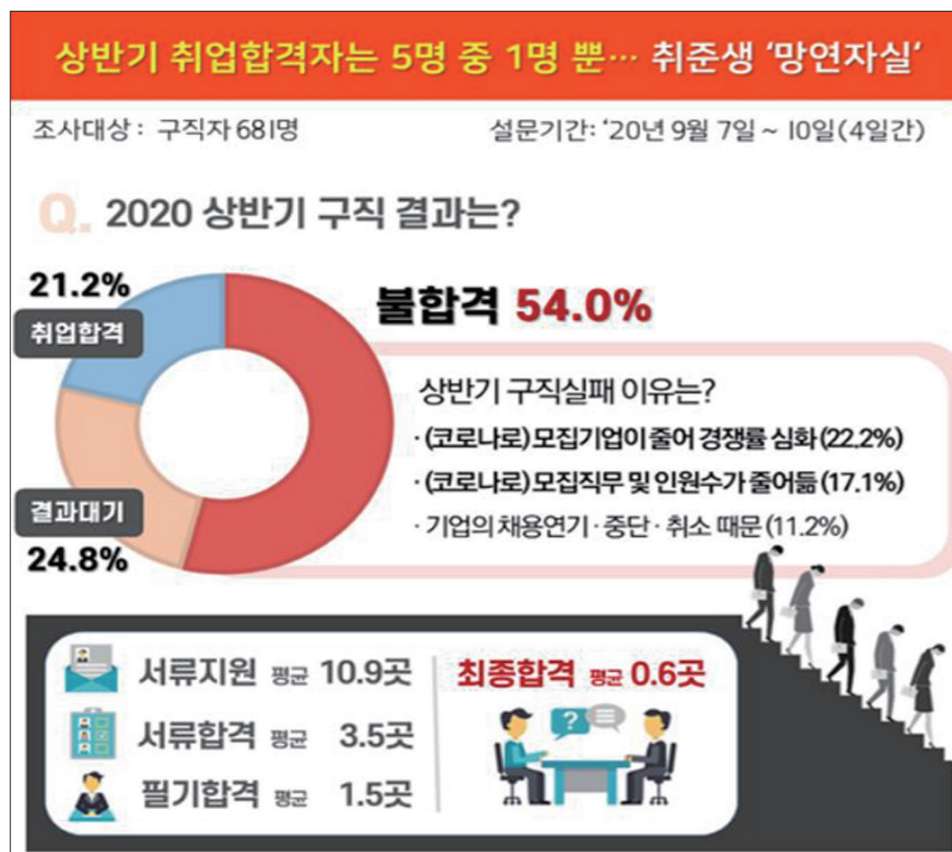


알마라도 더 버는 일이 중요하다(29.5%)’, ‘주 수입 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부업, 투잡의향이 생겼다’가 차례로 5위 안에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 유형,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할 일이 생기면 일한 의사가 있다(12.9%)’, ‘경제적 안정을 위해 워라벨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9.3%)’ 등이 있었다. 신봉우기자

## 상반기 구직자 5명 중 1명만 ‘합격’...코로나 직격탄

구직성적표 ‘차참한 수준’...코로나로 채용 취소·연기



상반기 구직을 가로 막은 가장 큰 주범은 역시 코로나19였다. 코로나 여파로 채용취소 및 연기가 이어지고, 모집도 줄어들어 경쟁률 심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올해

구직경험자 6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상반기 구직성적표' 조사결과다.

먼저 상반기 구직자가 지원한 기업(중복선택)은 ▲중견기업(25.8%) ▲중소기업(24.1%) ▲공공기관(23.1%) ▲대기업(21.9%) 순으로 집계됐고, ▲스타트업

(5.2%) 지원자가 가장 적었다. 지원결과 상반기 취업에 ‘합격’한 비율은 ▲21.2%로 확인됐다. 반대로 ▲‘불합격’은 54.0%로 합격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나머지 24.8%는 ▲‘결과 대기중’이었다. 즉 상반기 구직활동을 했지만 5명 중 4명은 현재까지 취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불합격 이유(중복선택)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역시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할린 흔적들이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모집기업이 줄어 경쟁률이 심화됐음’(22.2%) 외에도 ▲‘코로나로 모집직무 및 인원이 줄어들음’(17.1%) ▲‘코로나 여파로 자격증 응시도 중단되며 애로사항 겪음’(10.2%) 등 피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모집이 취소, 연기되며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 채용이 중단됨’(11.2%)을 통해서도 구직자들이 느꼈을 상실감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듯 ‘코로나19 탓으로 불합격 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60.7%에 달했다.

이 외 불합격 요인으로는 ▲‘서류 준비 미흡’(13.8%) ▲‘면접 응시결과 미흡’(13.9%) ▲‘필기 응시결과 미흡’(8.6%) 등이라고 자기진단을 내렸다.

끝으로, 앞서 상반기 합격한 참여자의 경우 평균 11곳에 지원해 서류합격 4곳, 필기합격 2곳, 이후 최종 1곳에서 면접에 통과해 합격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전한 최종 합격승률은 6%에 그쳤다. 김민정기자

## 추석 벌초 대행 ↑...평당 최소 2만5천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들 간 만남을 자제하면서 추석 성묘와 벌초 풍경도 크게 달라졌다. 친척끼리도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직접 벌초를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늘며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산소 방출을 자제하거나 벌초 대행을 권장하고 있다.

14일 경기 용인, 안성 지역의 묘지 벌초를 대행하는 S조경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예전보다 일감이 약 20%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 업체 대표 K씨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는 벌초 대행을 하루 15건, 한달 45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올해는 약 20% 가량 늘어났다”고 했다. “벌초 비용은 보통 3.3㎡(평)당 2만5000원, 기본가격은 9만원인데 최근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해 연결해주는 대행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추가돼 값이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하는 A업체는 수요가 늘어난만큼 경쟁업체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일감이 늘어나면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벌초 대행업체들이 2배 가까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전·여주에서 벌초를 대행하는 B업체 관계자는 “이전보다는 30~40% 물량이 늘어났다. 벌초하는 일이 12kg의 기계를 지고 하는 힘든 일이라 3명 정도 사람을 더 뽑아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가위 풍경도 바뀐 전망이다. 1년에 한 두번 4~6촌들이 산소에서 만나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만남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기동채본부

## 전남 첨단농업 이끌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군 도덕면 조성·2022년 준공

전남도는 미래 첨단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 도덕면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관련 산·학·연·관이 협력해 기술혁신과 검증, 농작물의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분석 등 농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조성한다.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1100억원을 들여 33.3ha 규모로 오는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핵심시설은 청년창업 보육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및 지원센터 등이다.

보육시설은 스마트팜 취·창업에 희망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제공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 간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자가경영의 기회가 주어진다.

실증단지와 지원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R&D)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타재 실증 등이 이뤄진다.

시설 중 청년창업 보육시설은 현재 순천대에 위탁 교육 중인 교육생의 실습 지원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조성하며, 나머지 시설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농촌보급자리를 비롯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육묘장, 주민참여형 단지 등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해 교육생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아열대 작물과 친환경농자재, 농업용 드론·로봇, 반밀폐형 온실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오유나기자

## 한진, 물류·택배사업 아이디어 공모...대상 상금 1000만원

예비창업자·대학생·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 대상...오는 11월 6일까지

중합물류기업 한진이 지난 14일부터 '2020 물류·택배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진이 물류·택배 사업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이다.

한진은 공모전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물류·택배 분야의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7월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에 참여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사로, 인하대학교, 투자사 5곳, 액셀러

레이터 3곳, 국토교통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공모분야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혁신 모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융합 기반의 스마트물류 ▲항공·해운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략 ▲이커머스 대응 물류 플랫폼 비즈니스다.

참가대상은 예비창업자, 대학생 또는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이며, 공모기간은 11월 6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결과 발표와 시상식이 이뤄진다.

참가팀 중 대상 1팀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상과 상금 1000만원이, 최우수상 1팀에게는

700만원, 우수상 3팀에게는 각 500만원, 장려상 5팀에게는 각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입상팀은 한진의 물류·택배 사업과 연계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연계와 인큐베이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지정해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준다. 대학생의 경우, 입사지원 가점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물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한진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한 기관, 기업과 함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